



발로 뛰는 윤명희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0 / FAX (02)788-0281 / E-mail : m567h@na.go.kr

[2015. 10. 1(목)]

윤명희 국회의원,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인 항만공사들

- 부산항만공사 올해에만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29건, 제2의 텐진항 될 수도 있어
- 울산항만공사는 최저 검사소 점검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실태는 낙제점
- 항만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1위는 인천항만공사로 최근 4년간 147명이 사망 또는 부상

2. 항만공사 직원 징계때 솜방망이 처벌 후 표창으로 징계감경 여수광양항만공사 징계자 중 85%가 1년내 표창으로 감경

- 해수부 출범이후 산하기관 중 청렴도 및 공직복무관리 평가는 울산항만공사가 가장 낮아...

3. 유리천장에 막힌 항만공사 여성 직원들

- 해피아 출신 낙하산은 잘 내려와도 여성직원들의 승진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 4개 항만공사의 임원급 여성직원은 '0' 명, 부장급 이상 관리직도 단 2명에 불과

4. 실적,성과 없이 예산막 쓰는 포트세일(해외 항만 마케팅)

- 4개 항만공사, 지난 3년간 포트세일로 12억 예산 사용했지만 계약성과는 없어
- 울산항만공사는 항만 가동율 26%에 불과해 적극적인 세일즈 마케팅 필요

1.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안전불감증인 항만공사들

- 부산항만공사 올해에만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29건, 제2의 텐진항 될 수도 있어
- 울산항만공사는 최저 검사소 점검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실태는 낙제점
- 항만공사 중 안전사고 발생 1위는 인천항만공사로 최근 4년간 147명이 사망 또는 부상

- 항만에서의 안전사고나 재해는 항만 이용자들에게 해당 항만의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를 가늠해 보는 대표적인 척도라고 할 것임.
- 특히 지난 8월 중국 텐진항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사고로 100여명이 사망한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국내 항만내 위험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요구 된다고 하겠음.
- 국민안전처 소방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올해 위험관리 소홀에 따른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한 29건으로 과태료 및 시정명령과 같은 경미한 처분 외에 입건도 13건이 될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하겠음.
-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제2류(가연성 고체) 위험물 컨테이너 10여개를 허가 받지 않은 옥외저장소 보관하거나 위험물질인 제4류(인화성 액체)와 제5류(자기 반응성물질)을 함께 적재한 사실도 발견되었음.
- 이는 부산항만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운영회사 8곳 중 7곳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항만공사의 업무 태만과 무사안일주의라고 할 것임.
- 또한 특히 위험물에 대한 취급이 많은 울산항의 경우 여수광양항에 비해 검사개소가 현격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건수는 오히려 2배 이상 높은 상황임.
- 지난 2012년에 울산항만공사는 26개소 검사에서 26건의 안전점검 지적 사항이 있었던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444개소에 대한 검사에서 단 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작년에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검사개소 452개 가운데 적발 건수가 6건인데 비해, 울산항만공사는 검사개소 57개에서 14건의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가 있었음.

- 울산항이 정유, 석유화학을 비롯한 중화학공업 위주의 항만인 동시에 국내 1위의 액체화물 처리 항만(154만톤, 점유율 34%)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우려되는 상황이며, 그동안 항만내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전수조사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부산항만공사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실태 현황>

유형별	2015년					2014년					2013년				
	지적사항					지적사항					지적사항				
	소계	입건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소계	입건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소계	입건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총 계	29	13	8	8		2			2		1				1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19	7	6	6		1			1		1				1
지하탱크 저장소						1			1						
주유취급소	3	1		2											
기 타 (무허가 및 시도조례 위반)	7	5	2												

-자료 : 국민안전처-

<울산 및 여수광양항만공사 안전점검 실태 현황>

구분	2014년						2013년						2012년					
	검사 대상 (개소)	지적사항					검사 대상 (개소)	지적사항					검사 대상 (개소)	지적사항				
		소계	입건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소계	입건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소계	입건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울산항만 공사	57	14			4	10	107	21			6	15	26	26			5	21
여수광양 항만공사	452	6			4	2	449	8			5	3	444	2				2

- 또한 주요 항만공사들의 경우 항만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음.
- 최근 4년간 항만공사 하역 근로자의 재해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570여건에 달하며,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최근 3년간 항만구역 내에서의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무려 760억 원이 넘는 다고 함.

<최근 3년간 항만하역 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경제적 손실추정액 ¹⁾	30,125	24,475	22,725
산재보상금 ²⁾	6,025	4,895	4,545
간접손실액 ³⁾	24,100	19,580	18,180

-고용노동부-

* 1) 경제적 손실추정액 : 산재보상금 + 간접손실액

2) 산재보상금 : 『2013년 산재보험 사업연보(고용노동부, '15.3)』 상 수상운수업·항만하역화물 취급사업 산재보상액 중 1인당 산재보상금을 산출하여 계산

<최근 4년간 4개 항만공사별 안전사고 현황>

구분 \ 연도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사망	5	10	2	5
중·경상	130	137	63	13
계	135	147	65	18
근로자수	4,800	2,759	967	1,300

-해수부 항만운영과-

- 최근 4년간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근로자수 대비 재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과 울산항만공사이며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하겠음.
- 고용노동부 조사에 의하면 1995년부터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1%미만을 기록하고 있음. 하지만 인천과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산재율은 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타 항만공사는(평균 1% 내외) 물론이고 건설업(0.74%), 제조업(0.97%) 등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임.
- 이렇듯 높은 재해율과 안전사고에 따른 수 백억대의 경제손실에도 불구하고 인천 및 울산 항만공사의 안전관리 예산과 관련 프로그램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짐.

<최근 4년간 항만공사의 안전관리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재해율
	예산	교육횟수	예산	교육횟수	예산	교육횟수	
부산항만공사	4	2	119	2	90	2	1%
인천항만공사	8.5	2	9.5	3	12.5	2	2.6%
여수광양항만공사	10	2	21	3	33	2	0.6%
울산항만공사	8	1	50	1	183	1	3%

※ 산재율 1%는 1백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가 연간 1명 정도임을 의미함.

- 윤명희 의원은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특히나 위험물을 많이 취급하는 특성상 인명과 관련된 업무는 더욱 철저히 챙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부족하며, 특히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안전관리 예산을 4개 항만공사 중 가장 많이 책정했음에도 이렇게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함,

2. 항만공사 직원 징계때 솜방망이 처벌 후 표창으로 징계감경

여수광양항만공사 징계자 중 85%가 1년내 표창으로 감경

- 해수부 출범이후 산하기관 중 청렴도 및 공직복무관리 평가는 울산항만공사가 가장 낮아...

- 우리 나라 물류의 90%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항만의 경제적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임.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항만공사 임직원들의 청렴도와 기관 경영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오늘 수감 받는 4개 항만공사 중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청렴도 조사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하나도 없음.
- 인천항만공사만이 유일하게 2등급이며, 나머지 기관들은 3등급과 최하 5등급임.

<국가 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평가>

기관명	등급(1~5등급)	평균 점수
인천항만공사	2등급	8.54
부산항만공사	3등급	8.35
울산항만공사	5등급	7.84
여수광양항만공사	-	-

- 각 기관별 주요 미흡 사항을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공사감독 점검에서 감점 요인이 많았으며, 울산 및 인천항만공사는 항만시설 이용허가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남.
- 오늘 피감기관들을 보면 해수부 공직관리 업무 평가에서도 대부분 보통이하의 C등급을 기록하고 있음.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 각 항만공사별 공직복무관리 평가결과>

	2013년도	2014년도
부산항만공사	보통(C등급)	보통(C등급)
인천항만공사	보통(C등급)	보통(C등급)
여수광양항만공사	미흡(D등급)	우수(B등급)
울산항만공사	보통(C등급)	미흡(D등급)

- 눈에 띄는 점은 다른 항만공사들의 경우 평가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나 오히려 상향된 반면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재작년 보통 C등급에서 지난해 미흡 D등급으로 떨어진 것임.
-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공직복무관리 계획 수립 미흡 및 자체 감찰활동 강화 노력 미흡 그리고 공사 취약분야(안전관리 등) 점점 미시행으로 나타나는데,
- 국정감사 수감을 받는 해수부 산하기관 14개 기관 중 13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겠음.
- 이에 울산항만공사 지난 3월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첫 관문인 <청렴 및 직무인식 조사>부터 참여율이 63% 매우 저조하였음.
- 특히 근속연수별 참여율을 보면 근속연수가 증가 할수록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5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평균보다 훨씬 낮은 58%의 참여율을 나타냄.
- 이러한 사항들은 지난해 CJ대한통운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항만운영본부장 A씨(62)와 항만물류팀장 B씨(52) 그리고 경영지원팀장 C씨(56)가 모두 1급 이상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고위직으로 올라 갈수록 청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여짐.
- 그리고 오늘 수감 받는 4개 항만공사의 경우 확실한 신상필벌을 적용하고 있는지 최근 4년간 징계현황을 살펴봤음.

<최근 4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기관	징계현황						
	견책/경고	감봉	정직	해임/강등	파면	총계	감경현황 / 비율
부산항만공사	6		1			7	2 / 33%
인천항만공사	7	1	3	1		12	3 / 25%
울산항만공사	8			1	1	10	감경 없음
여수광양항만공사	6	1				7	6 / 85%

- 그런데 대부분의 징계가 견책이나 감봉으로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지난 4년간 7명을 징계하였지만 1명을 제외하곤 전부 1년 이내에 표창 상신 등으로 징계를 감경하였음. 이는 전체 징계자중 무려 85%가 넘는 수치임.

***대부분의 행정기관들은 기관장 표창등을 받으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내부지침이 되어 있음.**

○ 경력 및 신입사원 채용업무 부당 처리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경고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추후 포상 상신 등을 통해 감경해 준 것임.

○ 윤명희 의원은 “이러한 온정주의적 조치는 타 항만공사와의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포상에 의한 잦은 감경은 징계의 효과를 감소시켜 내부의 기강해이는 물론 부정부패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고 말하며,

○ “해수부의 타 산하기관과 비교해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솜방망이 처벌과 쉬운 감경은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하였음

<해수부 산하 기관의 최근 4년간 징계 및 감경현황>

기관	징계현황						
	견책/경고	감봉	정직	해임/강등	파면	총계	감경현황 / 비율
해양환경관리공단	15	9	3	8	-	35	5 / 13%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3	3	3	강등(2)		11	없음
선박안전기술공단	9	6	3	4	1	23	1 / 4%
한국과학기술원	25	1	3			29	없음
한국해양연수원	3	1				4	없음
해운조합	2	3	3	강등(3)	-	11	없음

3. 유리천장에 막힌 항만공사 여성 직원들

- 해피아 출신 낙하산은 잘 내려와도 여성직원들의 승진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 4개 항만공사의 임원급 여성직원은 '0' 명, 부장급 이상 관리직도 단 2명에 불과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성관리자 비율을 증대시키고 있는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단 한 곳도 없는 4개 항만공사의 인사정책을 지적함.
- 우리 정부는 2017년까지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을 40%까지 달성하고, 여성 임용 확대 및 여성임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등을 추진 중에 있음.
- 또한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비율을 2016년 까지 16.4%, 2017년 까지 18.6%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대책을 보완하여 발표함.
- 하지만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하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임원 중 여성임원은 단 한 명도 없어 여성임원 비율은 0%를 기록하고 있음.

<4개 항만공사 여성 임원 현황>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임원	0명	0명	0명	0명

-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여성임원 뿐만 아니라 부장급 이상 관리자 중 여성 관리자는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부산 항만공사만이 부장급 이상 관리자 2명만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 또한 남성 관리자 대비 3%로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4개 항만공사 여성 관리자 현황>

구분	울산 항만공사	여수광양 항만공사	인천 항만공사	부산 항만공사
부장급 이상 여성 직원 수	0명	0명	0	2
부장급 이상 직원 수	12명	19명	30명	39명
부장급 이상 여성비율	0%	0%	0%	5%
평균비율	2%			

- 이에 윤명희 의원은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조직의 유연성

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4개 항만공사는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도(목표도달 시 공공기관 경영성과에 반영)’를 십분 활용하여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이며 여성항만종사자 지위 및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수 십여 차례에 걸친 포트세일에도 실질적인 계약 성과 없어 - 4개 항만공사, 지난 3년간 포트세일로 12억 예산 사용했지만 계약성과는 '0'

-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항만공사의 항 홍보와 투자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이 실질적 성과 없이 단순한 홍보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함.
- 실제로 4개 항만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포트세일에 약 1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함.

<주요 항만공사의 포트세일을 통한 투자유치 및 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예산	개최 건수	계약 실적	예산	개최 건수	계약 실적	예산	개최 건수	계약 실적	예산	개최 건수	계약 실적
2013년	360	12	-	114	5	-	40	3	-	75	2	-
2014년	133	10	1	56	6	-	25	4	-	45	4	-
2015년	43	7	1	85	7	1	35	2	-	74	4	-
총계	536	29	2	255	18	1	100	9	-	194	10	-

- 그러나 포트세일 명목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 마케팅은 대부분 항만당국 간 협력사업(MOU체결)이나 항만 홍보에 치우쳐 있을 뿐, 실질적으로 포트세일 진행 후 항만공사와 직접적인 계약 체결이나 투자유치 성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실정임.
-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항만가동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올해 항만가동률은 26% 수준에 그치고 있어 포트 마케팅을 통한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임.

<최근 3년간 4개 항만공사 항만가동률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부산항만공사	106%	117%	82%
인천항만공사	77%	80%	85%
울산항만공사	52%	52%	26%
여수·광양항만공사	46%	50%	50%

- 이에 윤명희 의원은 “포트세일을 통해 실질적인 물동량 증가와 배후단지 투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포트 마케팅 활동 시 평가항목을 통해 성과를 수치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